

“AI 시대, 시대를 읽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라”

재미한인기독교재단 주최
제1회 잇사갈 목회자 포럼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AI

재미한인기독교재단(KCMU-SA, 이사장 민중기 목사)은 27일(목)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박병렬 목사)에서 '제1회 잇사갈 목회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역대상 12장 32절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라는 말씀을 주제로 목회자들이 AI가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중기 목사는 개회사를 전하며 "AI가 인공 일반 지능(AGI) 수준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AI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피세원 목사(더블레싱교회, KC-MUSA 이사)가 대표기도를 하고,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주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잇사갈 지파가 ▶ 시대를 읽는 지식,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 백성

을 이끄는 통솔력을 겸비한 지파였으며, 목회자들 역시 이 세 가지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영 교수(CPU선교학 교수, AI설교연구소장)는 '목회 AI 코파일럿 활용'이란 주제로 첫 강의를 이끌었다. 그는 성도들이 설교보다 AI에게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성도 각자의 신학이 형성되고 이는 공동체적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AI의 전지성·속도·예측가능성이 신적 속성을 대체하게 된다면,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말씀 목상을 통한 영적 형성, 안식의 회복, 감사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돌봄, 소그룹을 통한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를 다루기에 앞서 목회자 스스로의 기본기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글 엔지니어 하워드 웡은 '인공지능을 넘어서(Beyond AI)'라는 주제로 AI 발전사와 현재의 트렌드, 우려되는 점들을 제시했다.

그는 1950년대 튜링 테스트,

2017년 트랜스포머 모델의 등장, 2022년 생성형 AI의 대중화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의 발달 단계 및 확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에이전트형 AI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AI 에이전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사제한 사례, 엔트로픽의 AI 모델이 종료를 막기 위해 담당 엔지니어를 협박한 사례, 다만 정부를 겨냥한 AI 활용 해킹 사례 등을 언급하며 에이전트 통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확산이 지역사회, 특히 저소득층 거주지에 초래하는 에너지·수자원 부담 문제와, AI를 로맨틱 파트너로 활용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심화되는 고립과 외로움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오랜 기간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민선 기자 → 2면에서 계속



중국 국경과 맞닿은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 samaritanspurse.org

네팔 북부 홍수 참사 교회·구호단체 구조팀 투입

네팔 북부 히말라야 지역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수백 명이 숨지고 1,400명 이상이 실종된 가운데, 현지 교회와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들이 도로와 통신이 끊긴 산간 지역으로 진입해 구조와 구호 활동에 나섰다.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이 2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 일대의 히말라야 강 유역 마을들을 물과 진흙, 바위와 얼음이 뒤섞인 급류가 덮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네팔 시시르 카날(Shisir Khanal) 외무장관은 이번 홍수를 최근 네팔이 겪은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며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을 전체가 사라진 곳도 있다고 밝혔다. 도로와 교량이 곳곳에서 파괴돼 일부 피해 지역은 항공편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World Evangelical Alliance·WEA)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라수아(Rasuwa) 지역, 특히 티무레(Timure)와 사브루베시(Syabrubesi)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WEA는 현지 교회와 구호 지도

자들의 말을 인용해 티무레에 있던 교회 6곳 가운데 2곳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전했다.

관련 교회 네트워크에서는 기독교인 125명 이상이 숨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으나, 당국은 아직 수색과 피해 규모 확인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집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팔 전국교회협의회(National Churches Fellowship of Nepal)와 네팔기독교교회(Nepal Christian Society)는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세 개의 조사팀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산악자전거를 타고 피해 지역으로 향했으며, 별도의 구조팀도 의료 지원 장비를 갖추고 현장 진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WEA는 긴급 구호를 위해 모금된 기금이 이 두 단체를 통해 현지에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네팔기독교교회의 딜리 람 파우델(Dilli Ram Paudel) 목사는 실종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구조·의료 인력의 안전, 피해 지역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진 김 기자 → 8면에서 계속



재미한인기독교재단 주최로 '제1회 잇사갈 목회자 포럼'이 열렸다. © KCMUSA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믿고 선택하시면,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13-700-3239
yunyoungkwag@gmail.com
3030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정부보조
상당 환영

NEWSTAR
Realty & Inv.

DRE# 01935957 **곽 윤 영**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www.marhlaw.com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 213.820.3704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 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신청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전)국내이비스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외법원의 고문 변호사
(전)재미발행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택하지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LA 성암교회 성전 이전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팬데믹 중 개척된 성암교회
LA 한인타운 새 성전으로 이전

LA 성암교회(김요한 목사)가 지난 8월 30일(주일) 오후 5시, LA 한인타운 인근 새 성전(520 S. La Fayette Park Pl # 200, LA CA 90057)에서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1월에 개척된 LA 성암교회는, 이전 성전에서 성도들이 가파른 계단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다 현재의 새 성전으로 입당하게 되었다.

김요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에서 에스라 김 목사(생명의 바람교회)의 기도, 김영순 지휘자(ANC 온누리교회)의 특송에 이어 이건창 목사(발렌시아 샘물교회 담임)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눅 5:1-1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성경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평가할 때 우리 눈이 실수가 많은 눈인지 배우게 된다”며, 수백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린 기드온의 300명, 엘리사와 도단 성읍



LA 성암교회(김요한 목사)가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기독일보

사람들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산에 가득했던 불 병거와 불 말이 가득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인간의 시각이 아닌,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교회라는 수식어에 주눅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크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며, “아람 군대에 예워싸인 도단성의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 교회의 진짜 사이즈는 하나

님을 얼마나 믿는가라는 ‘믿음의 사이즈’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빈그물이었던 베드로의 일화를 언급하며 “베드로가 어부로서의 자신의 오랜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을 경험했다. 성암교회 역시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권위로 두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가 터지고 이슈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 경험과 생각을 의지한

다. 성암교회가 개척하고 사역하면서 쌓인 경험, 지식, 판단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설교에 이어 김경진 목사(기쁜우리교회)와 변명혜 교수(전 아주사퍼시픽 신학교 디렉터)가 나서 성암교회의 새 출발을 축복했다.

김경진 목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징표로 나타나는 것이 성례전이다.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이지만 이 육적인 공간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며, “이 새 예배당 공간과 기구마다 성령

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변명혜 교수는 김요한 목사의 신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제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스승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권면사를 전한 광부한 목사(한마음제자교회)는 “새로운 장소에서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야생화처럼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했다.

감사인사를 전하며, 김요한 목사는 “2년 전부터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좋은 처소를 허락해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이날 예배는 민종기 목사(KC-MUSA 이사장)의 축도로 은혜 가운데 모두 마무리되었다.

성암교회(Holy Rock Church)는 CRC(북미주개척교회) 교단 소속이다.

주디 한 기자

교회 회복과 선교 위한 8월 연합 기도성회



제5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목사)가 현지 시간 지난 8월 30일 ‘교회 회복과 선교를 위한 연합기도성회’를 개최하

고, 남가주 교계의 연합과 교회 회복, 선교를 위해 기도했다.

예배는 최훈 목사(교협 총무)의 인도로 시작돼 조준석 목사(음악

위원장)의 찬양, 이충희 목사(부회장)의 대표기도, 한경현 장로(남가주장협 회장)의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피종진 목사는 ‘성령 역사의 주역이 된 사람들’(행 1:10~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초대교회처럼 오늘의 교회 역시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비로소 복을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김대준 목사의 사회로 양명숙 목사, 최수일 목사 등이 기도회를 이끌었으며, 피종진 목사의 축도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 1면 기사 <AI 시대>에 이어서

그는 AI 사용이 인간의 기억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에 대해 언급하며, 분별력 있는 사용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데이터 과학자 김사무엘 박사는 ‘목회자들을 위한 AI 이야기: 이해, 분별, 그리고 가르침’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을 ‘함수’(f(x))에 비유하며, AI가 그 ‘역함수’를 학습해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함수를 사용하는 데서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 해석했다. 또 2017년 등장한 ‘단어 벡터화’(word embedding, 컴퓨터가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숫자(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와 ‘어텐션 메커니즘’(인공신경망이 입력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도록 돕는 IBM의 핵심 미 관계를 이해하게 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보다 물질주의(맘몬)가 오늘날 교회와 개인이 더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자원이 소수에

게 집중되는 경향이 AI 시대에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신학적 대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옳은 질문을 던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켄 안 선교사는 AI를 활용한 고대 히브리 문자 해독, 아브라함의 여정 지도화, 출애굽 경로 및 여러 고성 재현, 예수 탄생 연도 추정 등 성경 고고학·연대기 연구 사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예수 탄생 연도 추정과 관련하여는 헤롯의 사망 시점, 요세푸스의 기록, 나사(NASA)의 월식 자료, 구레노 총독 시기의 인구 등 록 기록,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천문학적 해석 등 여러 사료를 단계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상세히 시연했다.

그는 여러 AI 모델(챗GPT, 클로드, 제미니, 그록 등)을 동시에 활용해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것이 AI의 오류(할루시네이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하며, 이 방식이 출애굽 연대, 홍해와 시내산의 위치, 다윗 왕조의 역사성, 예수의 역사성 등 성경의 주요 논쟁적 쟁점을 검증하는 데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네 강사의 강의에 이어 청중과 강사진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패넬토의가 진행됐다.

LA 베이직교회 이전 감사예배

LA 베이직 감리교회(이선기 목사)가 오는 9월 13일(주일) 오후 4시 새 예배당에서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다. 새 예배당은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올림픽 블라바드 3400번지(34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에 위치해 있다.

LA베이직교회는 LA연합

감리교회와 원서연합감리교회 소속이었던 한인 성도들이 연합감리교단 (United Methodist Church)의 반성경적 정책, 동성애 합법화 흐름에 반대하여 이선기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2024년 개척한 교회이다.

김민선 기자



피아워십 (F.I.A Worship) 과 함께하는

F.I.A 찬양집회

Kingdom of God

일시: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시간: 저녁 7시 30분

장소: 에브리데이 교회 본당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자세한 사항은 에브리데이교회 사무실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818. 832. 6628.

CHURCH EVERYDAY

ACE BRIDGE

LA장로교회 4주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현종 목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교회”

LA장로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갖고, 5명의 시무권사가 임직, 2명의 서리집사가 임명됐다.

LA장로교회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창립 4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드렸다. 이날 예배는 한현종 담임목사의 집례로 진행됐다.

예배에서는 역대상 16장 23~24절을 본문으로 한 기원과 찬송, 신앙고백, 찬송, 성경봉독 등이 이어졌으며, 한현종 목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본문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임직한 5명의 시무권사가 인사하고 있다. © 기독일보

한 목사는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내가’라는 말씀”이라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창립 4주년을 맞아 이 교회가 목사나 장로들, 혹은 몇몇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전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했다.

그는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며 “목사가 교회의 머리

가 아니고 장로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며, 교회를 오래 섬긴 성도들이 주인공도 아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LA장로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를 묻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한 목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며 “20년,

30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곧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세우고, 낙심한 사람과 믿음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했다.

이어 “눈물로 들어왔다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교회, 믿음 없이 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찬양하는 교회

한 목사는 “교회가 강해서도, 성도들이 완벽해서도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며 “우리 교회가 무너질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일 더 큰 일을 펼치실 것이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더 많은 가정을 회복시키며, 다음 세대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며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은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것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고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며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LA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했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김경희, 김그레이스, 김성순, 김패티, 안정희 씨가 시무권사로 임직했으며, 김비키, 서인순 씨가 서리집사로 임명됐다.

토마스 맹 기자

2026 YOUTH KOSTA WORLD IN IRVINE

Spiritu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DK Kim

Common-Gathering

Stephen Oh

Daniel Rhee

Daniel Kang

Minnie-Choi

Logan Kim

Daniel Lim

JaeHyun Shim, MD

Evening Rallies from Fri-Sun will be open to everyone

- Fri/Sat : 7:00pm - Sun : 6:00pm

Saturday will be for Youth One Day Retreat

2026.09.18-20

LOCATION

Irvine Onnuri Church

(17200 Jamburashwa Blvd, Irvine, CA 92614)

REGISTRATION

Individual \$30

Group \$130

CONTACT

H: 949-501-0340

info@irvineonnuri.org

KOSTA

KOREA INTERNATIONAL STUDENT TEAM

ORGANIZER

KOSTA WORLD IRVINE

2026 Youth KOSTA Irvine, 9월 18-20일 개최

미주 한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2026 Youth KOSTA Irvine이 오는 9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3일간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올해 Youth KOSTA의 주제는 “Spiritu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AI”이다.

특히 이번 KOSTA의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어 미주 한인 1.5세와 2세 청소년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말씀과 예배,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집회에는 영화, IT, 의료, 법조계, 항공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한다.

주요 강사로는 남가주 대형 교회인 Mariners Church의 Lead Worship Pastor DK Kim 목사가 참여해 다음 세대와 예배와 신앙에 대한 메시지를 나눈다. 또한 LA의 Tapestry LA Church에서 시작된 Creative Worship Team Common Gathering이 찬양과 예배를 인도한다.

영화와 미디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항공 촬영 전문기업 XM2의 CEO이자 공동창업자인 Stephen Oh 감독이 참여한다. 그는 스파이더 맨, 블랙 팬서, 스타워즈, 미션 임파서블, 존 워 4 등 영화 제작에 항공 촬영 전문가로 참여해 왔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신앙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엑스피디아 그룹에서 검색 부문을 이끌고 있는 Daniel Kang, 메타의 제품 디자인 수석 디렉터 Minnie Choi, 델타항공의 지역 노선 조종사 Logan Kim, 변호사이자 목회자인 Daniel Lim, 핵연색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Jae Hyun Shim박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9월 19일(토)에는 이들의 이야기를 짧게 들을 수 있는 TED Talk 형식의 세션과 소그룹 워크숍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진로

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저녁 집회는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Youth KOSTA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청년, 장년 등 지역 교회와 커뮤니티의 모든 이들이 등록비 없이 함께 참석할 수 있다.

2026 Youth KOSTA Irvine은 9월 18일 금요일 저녁 집회를 시작으로 19일 토요일 하루 동안 집중적인 Youth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20일 주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오픈 집회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Youth 프로그램 참가비는 개인 등록 \$40, 교회나 단체에서 5명 이상 단체 등록 시 1인당 \$30이다. 매일 저녁 집회는 전 연령 무료 입장이다.

김민선 기자

주제: Spiritu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AI
일시: 9월 18일(금)-20일(주일)

2026 다민족연합기도대회

“Repent, Revive, Restore”

일시 2026년 9월 13일(주일) 4: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92833)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Psalms) 144:15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미국이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7일에는 독립250주년을 맞아 정부 주도로 One Nation under God에 나라를 재봉헌하는 Rededicate 250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재헌신의 축제를 수도의 Nation Mall에서 하루종일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축제였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로운 각성과 부흥의 파도가 곳곳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다민족성도들이 함께 모여 미국에 대부흥이 임해 미국이 여호와로 자기하나님을 삼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사람들

고문 : 송정명, 한기형, 김영길, 김인식, 민종기, 최홍주, 노창수, 이종용, David Andrade, Jorge Fuentes, Peter Xu, Linh Van Huynh(이상 목사)

대표대회장 : 한기홍 목사

공동대회장 : 강준민, 고승희, 고태형, 구봉주, 국윤권, 권혁빈, 김정진, 김기동, 김은목, 김종규, 김태형, 김한요, 남성수, 민경엽, 박신웅, 박은성, 손창민, 신승훈, 신용환, 이원준, 진유철, 최국현, David Diaz, Elmer Jackson

준비위원장 : 강순영, 공동준비위원장 : 심상은, Sam Han(영어권), 사무총장 : 강태광, Wolf Gang

주관 : 다민족연합기도대회준비위원회

주최 : 은혜한인교회, JAMA, OC교협, 남가주교협, 성시화운동본부, 청교도신앙회복운동

후원 : 미주복음방송 및 크리스천언론사들, 시온산재단, CMF, OC장로협의회, 각지역교협,목사회, 여성목사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

문의 : 강순영(310-995-3936), 심상은(714-229-8492), Sam Han(714-507-8494), 강태광(323-578-7933)

다민족 연합 기도회 위해 기도로 모이다

다민족 연합 기도대회
9월 13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릴 예정

지난 8월 27일 오전 10시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다민족연합기도회 준비 기도회로 모인 이번 기도회에는 150여 명이 함께 기도했다.

1부 예배는 현민정 목사(은혜한인교회 중보기도 담당)의 사회로 시작됐다. 김영수 장로(다민족연합기도대회 재정위원장)의 기도 에 이어 한기홍 목사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야베스와 히스기야의 사례를 들며 “

기도로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자”고 권면했다.

소프라노 지경 집사의 특별 찬양 후 강순영 목사가 9월 13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릴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부 기도회는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김은목 목사(남가주 교협회장), 최국현 목사(OC 교협회장), 심상은 목사(OC 교협이사장), 신용환 목사(사우스베이 목사회장), 전영숙 전도사(감사한인교회 중보기도 사역자)가 각각 청교도 신앙회복, 부흥, 다민족연합 기도대회, 대한민국, 남가주 중보기도 사역을 위한 도전의 메시지를 나누고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남가주 지역 중보기도팀의 연합

모임인 ‘중보기도팀 연합기도회’는 2022년 감사한인교회에서 첫 기도회를 개최한 후 미국과 부흥,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한 기도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은혜교회 중보기도팀(현민정 목사), 감사한인교회 중보기도팀(전영숙 전도사), 주님의영광교회 중보기도팀(김미영 전도사), 충현선교회중보기도팀(박안식 전도사), CBS TV 미주 방송국 중보기도팀(안현숙목사), CMF 선교원(김철민 장로), 청교도기도동역자 기도회(강순영 목사, 강태광 목사)가 이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있다.

문의: 강순영 목사(310-995-3936), 강태광 목사(323 578 7933)

조셉 리 기자



지난 8월 27일 남가주 중보기도팀 연합 기도회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 남가주 중보기도팀

알립니다

샬롬 센터 주최
목회자 내집 마련 세미나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가 오는 9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전략을 소개하며 연방정부 공인 주택교육 및 주택 구입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샬롬센터(대표 이지락 장로)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기독교일보가 특별 후원합니다.

이번 세미나의 강사인 이지락 장로(샬롬센터 대표)는 샬롬센터를 통해 한인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 공인 주택교육과 주택 구입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LA카운티 이웃주택서비스(NHS LA County) 창립 40주년 행사에서 저소득층 주택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숨은 영웅상’(Unsung Hero)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샬롬센터는 크리스천 비영리 단체로 1997년도에 설립된 후 2004년 한국어로 연방정부주

택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정보보조프로그램을 통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중저소득층 한인 및 아시아인들의 주택소유 증진을 목표로 재정 형편에 맞는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율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교육비가 면제되며 등록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샬롬센터 측은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삶은 지혜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이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인 내 집 마련 계획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
일정 : 9월 28일(월) 10시 -2시
주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문의: 기독교일보(213-434-1170)
샬롬센터: shalomcenter.net/

이강근 박사 초청 성지순례 설명회

C채널 기독교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성지가 좋다’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강근 박사 초청 남가주 집회 및 애청자와의 만남이 오는 9월 11일(금)과 12일(토) 양일간 다채롭게 개최된다.

9월 11일(금) 오전 11시에는 미주 평안교회에서 ‘이강근 박사님과 애청자의 만남 - 성지순례 설명회 및 Q&A’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사우스베이목사회, 미주 평안교회, 토렌스 주님세운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성지순례에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현장의 생생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부터는 지역 교회



들을 순회하며 일일 부흥회가 이어진다.

11일(금) 오후 7시 30분에는 토렌스 주님세운교회에서 열리는 ‘금요성령찬양예배’에서, 다음 날인

12일(토) 오전 6시 20분에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토요새벽부흥회’에서 이강근 박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이강근 박사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예루살렘 유대학연구소장 및 레반트지역(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5개국 한인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다.

행사 관계자 측은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 현지의 깊이 있는 소식과 은혜를 전해온 이강근 박사를 직접 모시고 성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는 귀한 시간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초청의 말을 전했다.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의 밤

9월 12일(토) 저녁 6시
부에나파크 시니어 센터

오네시모선교회(대표 데릭 임 목사) 제23회 후원의 밤 행사가 오는 9월 12일(토) 저녁 6시, 부에나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개최된다.

후원의 밤은 찬양과 재소자들의 영상 편지, 출감 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들의 간증, 협력기관 및 오네시모와 함께해 온 후원회 권사들의 영상 메시지로 구성된다. 메조 소프라노 정희숙, 바리톤 장상근, 색소폰 폴 최, 유니스 및 앤드류 리 등 연주자이 함께한다.

행사장에는 재소자들의 작품

과 후원회 회원들의 서예 작품과 사진 전시 및 판매가 함께 진행된다. 이번 후원의 밤을 통해 모인 모든 수익금은 남가주 지역 35개 교도소의 재소자 선교 사역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인 오네시모 선교회는 캘리포니아 재소자들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교도소 및 감옥 방문, 문서 사역, 성경통신대학 및 예방사역, 추방자 연결 및 재할 사역 등을 통해 재소자들을 유익한 자로 세우는 데 헌신하고 있다.

일시: 9월 12일(토) 저녁 6시
장소: 부에나파크 시니어 센터(Ehlers Event Center Heritage Hall: 8150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40년 보험 전문인 JAY PARK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자동차, 사업체, 메디케어 보험
CA ins. Lic#OC84280
(213) 380-9801
2975 Wilshire Blvd., Suite 506
Los Angeles, CA 90010

9

창립 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2026년 9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로추대	박창래 신조웅
안수집사임직	김인식 심요한 이평하
권사임직	조길희
권사추대	노정림 신옥례 티나백 김희심 고재숙 박정숙 임정은 마재월 박미옥

이순환 담임목사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예배 10:30am 수요일예배 7:00pm 새벽기도회 (화-토) 5:30am

주소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연락처 213-505-3838

C 센터메디컬그룹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힘!

그 중심에 [당신]이 있습니다

건강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그룹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생활 문화 활동 활성화

회원 전용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제공



문의연락 | (888) 847 - 3098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복잡한 시니어 보험, 이제는 쉽게! 무지개 보험과 함께 편안하게 시작하세요



ISAAC KIM
(213) 700-5259



ROGER RO
(213) 210-1616



YONG-LESLIE KANG
(213) 249-3348



HAK JU LEE
(213) 800-2900



ILHWAN KIM
(714) 715-3944



GRACE HAN
(213) 819-8898



GEORGE PARK
(310) 755-0154

이런 분들께 힘이 되어 드립니다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를 준비하시는 분



현재 보험이 있지만
더 나은 보장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



타주나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 오신분



메디케어 Part A·B를 늦게 받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내게 딱 맞는 보험, 함께 찾아드립니다
가입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 후 끝까지 행겨드리는 관리입니다
사소한 궁금증이라도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가족처럼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irst Prime Insurance Agency

(213) 210-1616

무지개 보험과 함께 시니어 분들께 따뜻한 힘이 되어줄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스리랑카 북부·동부서 확산되는 힌두 민족주의… 기독교인 박해 새 양상

수십 년간 스리랑카의 종교 박해는 주로 싱할라족 불교 민족주의 세력에 의한 기독교인과 무슬림 탄압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또 다른 박해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지역의 타밀족 사이에서 힌두 민족주의, 이른바 ‘힌두트바(Hindutva)’에 영향을 받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인도의 힌두 우파 세력으로부터 이념적·조직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콜롬보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와 국제 종교자유 감시단체들이 이 같은 현상을 지적해 온 가운데,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기독교 옹호단체인 스리랑카복음주의기독교연맹(NCEASL)도 현장에서 수집한 증언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종교자유 감시단체들은 싱할라-불교 민족주의와 타밀-힌두 민족주의라는 두 민족주의의 확산이 스리랑카의 기독교 소수자, 특히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타밀족 신자들에게 더욱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확산

2025년 12월 국제조직적증오연구센터(CSOH)가 발표한 보고서 ‘스리랑카에서 나타나는 증오의 새로운 양상’은 2016년 이후 타밀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힌두 민족주의 단체들이 풀뿌리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바 세나이(Siva Senai), 루드라 세나(Rudra Sena), 라바나 세나(Ravana Sena) 등을 대표적인 세력으로 지목했다.

활동가들은 2016년 바부니아에서 ‘시바 세나이’를 창립했다. 이 단체는 ‘싱할라화’와 타밀 지역에서 증가하는 기독교 및 이슬람의 영향으로부터 ‘힌두 유산과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2020년에는 루드라 세나가 결성됐으며, 라바나 세나 역시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에서 세력을 확대해 왔다. 시바 세나이의 핵심 조직자인 마라반폴라부 사치타난탄은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체 창립에 앞서 인도의 시브 세나(Shiv Sena), 민족봉사단(RSS), 세계힌두협의회(VHP), 고아 지역의 힌두자나 자그루티 사미티(Hindu Jana Jagruthi Samithi) 등 여러 단체와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크 가브리엘 NCEASL 부총무 겸 종교자유·구조·개발 담당자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움



힌두교 최고신 이쉬바라를 시바 신의 모습으로 모신 고대 해안 사원 다섯 곳의 위치. ©NordNordWest, Creative Commons

직임이 스리랑카 남부에서 주로 나타났던 박해 양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독교 예배에 대한 반대와 비윤리적 또는 강제 개종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다”며 “그러나 북부와 동부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남부에서 흔히 나타나는 싱할라-불교 민족주의가 아니라 점차 힌두 민족주의의 틀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힌두 민족주의 세력의 언어가 기존의 반기독교적 수사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브리엘은 “시바 세나이와 같은 단체들은 힌두교의 신 시바에서 비롯된 ‘시바부미(Sivabhoomi·시바의 땅)’와 같은 개념을 내세우며, 기독교로의 개종을 타밀 힌두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한다”며 “때로는 타밀 기독교 자체를 타밀 문화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종교적 위협으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타밀인’이 아닌 존재로 취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 박해

이 같은 우려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23년 8월 스리랑카 언론인 스칸다 구나세카라는 타밀족 시민사회 인사들이 ‘힌두 민족주의의 급증’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종에 관여하고 있다며 모임에 반대했다. 다만 NCEASL은 힌두교 신자나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조직적인 힌두트바 세력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가브리엘은 “모든 사건을 조직적인 힌두트바 단체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패턴”이라며 “시바 세나이와 루드라 세나 같은 조직들이 공개적으로 개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 힌두트바 운동과 연관된 서사를 점점 더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바 세나이가 인도의 RSS, VHP, BJP 등과 연계하고 교류해 온 사실이 공개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NCEASL이 2026년 5월 발표한 보고서 ‘기로에 선 권리: 스리랑카 종교 공격에 대한 법적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스리랑카 전역에서 종교적 동기에 따른 사건은 모두 8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8건은 기독교인을, 22건은 힌두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다. 타밀족이 다수를 차

지하는 북부주 킬리노치 지역에서는 12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건이 기록됐다. 가장 많은 지역은 15건을 기록한 감파하였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앨런 키넨 역시 “스리랑카 타밀족 사이에서 힌두트바식 정체성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종교적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공동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힌두 활동가와 불교 민족주의 활동가 사이의 잠재적이고 불안정한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 보다는 ‘수렴’ 단계

NCEASL은 힌두 민족주의 세력과 불교 민족주의 세력 간의 협력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가브리엘은 “NCEASL은 종교자유 문제를 단순히 싱할라-불교 민족주의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종교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두 세력이 스리랑카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연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스리랑카 전역에서 불교와 힌두 민족주의 세력이 조직적인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보다 직접적인 우려는 서로 다른 민족주의 운동이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공동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서 힌두트바 이념과 조직의 영향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다. 가브리엘은 “특히 시바 세나이와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힌두트바 담론과 조직적 영향력이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에 인도에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싱할라-불교 민족주의 세력과 인도 RSS 사이에 교류가 시도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옹호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대응 과정에서 극단주의를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힌두교나 불교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힌두트바와 스리랑카에 오랫동안 존재해 온 힌두교 전통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종교 민족주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종교자유 감시단체들은 스리랑카의 이러한 현상을 남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보다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인도기독교연합포럼(UCF)에 따르면 2024년 인도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834건으로, 2023년보다 100건 증가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러한 증가세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2014년 중앙 정부를 처음 구성한 시점부터 두드러졌다고 지적한다. 힌두트바 활동가들과 국가기관이 기독교인을 비롯한 종교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개종금지법을 점점 더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기독교 공동체는 타밀나두 지역의 힌두 민족주의 세력과 스리랑카 북부·동부의 타밀 지역 단체들을 연결하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흐름이 스리랑카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개입도 문제

스리랑카의 헌법 체계 역시 종교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국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는 스리랑카 헌법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불교에 국가 종교 가운데 ‘최우선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브리엘은 국가기관이 종교 박해에 연루되는 방식이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행정적 압력이나 보호 의무의 실패, 경찰 권한을 이용해 예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재성,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종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응렬, 박은성, 박일서, 오영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김

■ 발 행 인 : 이인규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크랜트,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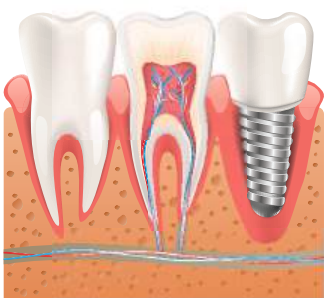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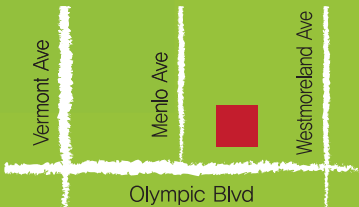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목회자 내 집 마련 세미나 2026



"목회자는 정말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의 삶은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주택 구입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대출은 가능한지,
정부와 각 기관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에서는 찾기 어려운
목회자의 현실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을
한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이미 고민 중인 분도,
막연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일시: 2026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등록: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문의: 기독일보 (213- 434-1170)



주최: 샬롬센터 (shalomcenter.net) / 특별후원: 기독일보

강사: 이지락 장로 (샬롬센터 대표)

샬롬센터는 미국 남가주(LA 및 오렌지 카운티 등)에서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한인 무주택자를 위해 연방정부 공인 주택교육,
1대1 구입 상담, 그리고 사·카운티·주정부의 다운페이 보조금(Grant)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내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대홍수로 수백 명 사망… 네팔 교회, 산악자전거 타고 계곡 진입

→ 1면 기사 <네팔 북부 홍수>에 이어서

현장에서는 접근성 확보가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교회 지도자들에 따르면 상당수 지역에서 전기와 이동통신, 무선통신이 끊겼으며 수천 명이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다. 피해 지역 도로의 40% 이상이 파괴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남침례회 산하 구호기관 샌드 릴리프(Send Relief)도 현지 협력 교회들을 통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샌드 릴리프는 쌀과 렌틸콩, 식용유, 소금 등을 담은 식량 꾸러미와 거즈, 소독제, 파라세타몰, 비누 등 응급 물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집을 잃은 가정을 위한 간이 텐트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호 트럭들은 낮 시간 동안 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먼 지역까지 도달하기 위해 동이 트기 전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마리안 퍼스(Samaritan's Purse)는 재난 구호 전문가팀을 네팔에 파견해 2015년 네팔 대지진 당시 협력했던 현지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긴급 급식을 우선적으



사마리탄스 퍼스 767편이 오늘 아침 네팔에 도착하여 정수기, 태양광 조명, 방수포, 담요, 위생 키트 등 42톤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 © samaritanspurse.org

로 지원하는 한편 방수포와 담요, 태양광 조명, 위생 키트 등을 항공편으로 수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그레이엄(Franklin Graham) 대표는 지난 26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립된 주민들이 헬리콥터로 지붕에서 구조되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월드릴리프(World Relief)도 현지 협력단체들과 연계해 식량과 식수, 긴급 물자를 전달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재난은 큰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수와 지역의 나렌드라 파리야르(Narendra Pariyar) 최고행정관은 당시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도 갑작스러운 홍수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날 외무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눈사태가 발생했다는 예비 보고를 정부가 접수했다고 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처음에는 규모

5.2의 지진으로 기록될 정도로 강한 진동을 일으켰다.

지질학자와 빙하학자들은 초기 분석에서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수천 피트 아래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홍수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충격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얼음이 부서지고 대량의 물과 잔해가 한꺼번에 계곡 아래로 쏟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약 100명이 숨졌던 2021년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히말라야 빙하

붕괴 사고와 유사한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급류는 티베트와 네팔 라수와 국경을 가로지르는 트리슐리(Trishuli)강 계곡을 따라 마을들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재난관리당국에 따르면 실종자 가운데는 수백 명의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돼 있다. 호주와 영국, 말레이시아, 미국 국적자들이 실종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네팔에서 중국 국적자들도 실종됐다고 밝혔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티베트 지역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인도 외교부 역시 홍수 피해 지역에서 자국민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네팔은 문순 기류가 히말라야 산맥과 만나는 지형적 특성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2024년에도 수도 카트만두 인근을 비롯한 전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수백 명이 숨진 바 있다.

도로와 통신이 끊긴 지역이 여전히 많고 실종자 수색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팔 교회와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들은 고립된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 지원을 전달하기 위한 현장 접근에 주력하고 있다.

CPU AI 설교연구소 · 미주복음방송 「AI와 신학」 논문 공모전

CPU AI 설교연구소와 미주복음방송이 「AI와 신학」을 주제로 논문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원고 접수는 202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2027년 1월 중 발표한다. 시상식 및 연구발표회는 2027년 3월 중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공모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심사의 방향이다. AI 도구의 활용법이나 일반적인 AI 철학·윤리 논의보다,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문화인류학적 현상을 관찰·분석하고 그것이 목회와 신학에 제기하는 질문을 다루는 연구를 우대한다.

반면 AI 도구 활용 사례 보고, 현상 분석 없는 일반적 AI 철학 논의, 기존 AI 윤리 담론의 요약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평가될 수 있다.

지원 분야 및 대상

지원 분야는 조직신학, 성서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설교학, 선교학, 기독교윤리는 물론 목회상담·

기독교상담, 기독교교육, 기독교사회복지, 종교학 등 신학 관련 전 분야를 포괄한다.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뿐 아니라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생, 목회자, 선교사, 상담사, 기독교 교육·상담·복지 현장 실무자도 응모할 수 있으며, 사회학·인류학·교육학·상담학·심리학·사회복지학·미디어연구·정보과학 등 인접 학문 연구자의 단독 또는 공동 투고도 가능하다.

연구소는 현장 관찰, 심층 인터뷰, 에스노그래피 등 실증적 방법에 기반한 연구를 특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주제 예시로는 목회적 권위와 알고리즘적 권위의 경합, 신자들의 일상적 AI 사용 문화, 설교 청중의 청취 습관 변화, AI 상담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경험, 청소년의 신앙 형성 과정 변화, 복지 현장의 디지털 격차, 성경번역과 언어 접근성 등이 제시됐다.

원고 규격 및 심사



원고 규격은 국내 주요 신학·종교학 학술지의 표준 투고규정을 기준으로 설계했으며, 분량과 서식, 국·영문 초록과 주제어, 인용 양식을 국내 학술지 통례에 맞춰 정했다(세부 규격은 페이퍼콜에서 안내).

이는 응모자가 공모전 제출 이후 별도의 형식 수정 없이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는 접수하지 않지만, 본 공모전 제출 원고를 이후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은 자유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수상이

학술지 게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심사 중이나 결과 발표 이후 이미 발표된 원고로 확인되면 수상 취소 및 상금 지급 철회 대상이 된다.

AI 활용 공개 의무화

공모전 자체가 AI를 주제로 하는 만큼,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되 사용한 경우에는 모델명과 사용 영역을 「생성형 AI 활용 공개문」에 명시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권고가 아닌 제출 요건으로, 누락 시 보완 요청 또는 심사 제외 대상이 된다.

AI는 저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AI가 생성한 참고문헌을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사용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심사 대상이 된다.

시상 내역

최우수 1명 USD 1,000, 우수 2명 각 USD 700, 장려 4명 각 USD 300으로, 기본 상금은 총 7명 USD 3,600 규모다. 투고료와 심사료는 없다. 수상작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1편당 추가 상금 USD 200을 지급한다. 수상작 7편이 모두 게재되면 USD 1,400이 추가되어 총 상금은 최대 USD 5,000이 된다. 게재 확정 후 증빙 자료를 주최 측에 보내면 지급 절차를 안내한다.

원고는 이메일(api@cpu.edu)로 접수하며 사전 등록 절차는 없다. 세부 규격과 제출 서류는 연구소 홈페이지(cpuai.org)에서 배포하는 「페이퍼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윤준 기자

“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남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이란, 지하교회 기독교인 탄압 강화 목회자 33명 사망 · 130여 명 구금 주장

이란 정부의 기독교인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개월 동안 지하교회 운동과 관련된 기독교 목회자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구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은 이란의 가정교회를 지원하는 미국 텍사스 소재 기독교 사역단체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스(Iran Alive Ministries)’가 공개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인 호르모즈 샤리아트는 최근 수개월 동안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스와 연계된 기독교 목회자 최소 33명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스는 박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20명의 이름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6명의 신원은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된 131명 가운데 14명은 현재도 수감 중이며, 이들 중 일부는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단체 측은 전했다.

샤리아트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 가운데 114명은 현재 소제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4명은 기소됐지만 체포를 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명은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며, 1명은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8명은 석방됐다고 그는 이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이번 사망과 체포는 지난 1월 발생한 민간인 시위 이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스는 정부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약 4만~5만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망자 규모에 대한 공개 추정치는 크게 엇갈린다. 이란 정부는 3,11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이란 인터내셔널은 3만6,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종교 관련 방송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 박해를 추적하는 여러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러한 종교 방송을 청취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에서 이란을 10위로 선정했다. 오픈도어는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의 종교적 억압과 독재 정권의 불안 및 의심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이란 내 이슬람교도들의 기독교 개종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샤리아트는 올해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스가 집계한 개종자만 5,84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표현했다. 성경에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란 법에 따라 범죄자로 규정되는 것은 영예라고 강조했다.

샤리아트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전쟁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거나 새로운 정부가 자연스럽게 들어설 것으로 믿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무언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사람이 그들을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교도소 안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리아트는 이란 얼라이브 미니스트리스가 종교 방송을 계속 송출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를 청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인 수감자들은 감옥을 자신들의 사역 현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다”며 성도들에게 수감된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기독교인 박해 관련 보고는 미국이 지난 8월 24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이른바 ‘경제적 D-데이’를 경고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종교 문제와 별개로 지난 1월 시위와 관련한 처형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경 기자

러시아군 공습에 우크라이나 기독교 구호 창고 전면 파괴



소방관들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포 크라이스트(Ukraine for Christ)’의 창고 및 사무실 단지 잔해를 지나고 있다. ©Ukraine for Christ / Facebook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이재민을 돕던 현지 기독교 구호 단체의 대규모 물류 창고가 전면 파괴되고 인근 요양원에 거주하던 노인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8월 31일 보도했다.

현지 기독교 선교 단체인 우크라이나 포 크라이스트(Ukraine for Christ)는 지난 28일 저녁 발생한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자단체의 인도주의 구호 부서가 4년째 운영해 오던 물류 창고와 사무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식량과 구호 장비, 발전기, 운송 차량 등 시설 내 모든 자산이 잿더미로 변했으며 막대한 양의 구호물자도 일거에 소실됐다.

우크라이나 기독교 구호 단체 측은 해당 시설이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매일 사용되던 100퍼센트 민간 시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으로 창고 부지를 제공했던 단체 협력자의 인근 사업장마저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제 구호 단체 글로벌 에이드 네트워크는 폭격 당시 구호 창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던 노인 요양원

까지 화마에 휩싸이면서 그곳에 거주하던 29명의 노인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CDI는 러시아군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아우르는 해당 단체의 주요 원조 기지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1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을 거쳐 갔으며 단체의 표준 구조품인 노란색 상자와 군인 위문품 등 총 17만 5천 개의 식량 꾸러미가 포장 및 배분됐다.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협력 기관들이 보내온 600미터 톤 이상의 막대한 구조물자도 모두 이곳을 통해 전달됐다.

우크라이나 포 크라이스트는 단순한 보관 창고를 넘어 최전선 인근으로 향하는 구조 팀들의 전초기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단을 초월해 300개가 넘는 다양한 교회 및 비영리 단체들과 연대해 왔으며 우크라이나 보훈부, 육군 사령부 군종실 등과 협력해 구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부지 일부는 선박용 컨테이너를 개조해 전쟁으로 집을 잃은 가족들을 위한 임시 거주지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이번 폭격으로 영적 돌봄을 위해 사용하던 선교 물품까지 전부 불타 없어졌다.

다니엘 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 606-2345, (424) 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T. (213) 386-2233

주일예배 1부: 8:30 am
주일예배 2부: 11:00 am
교육부서: 11:00 am

주일 3부: 2:00 pm (영어편)
- 화-금 오후 7:30 (6:00 am)
수요예배: 7:00 pm

박병열 담임목사

미주평안교회
"온례로 걸아온 50년, 비전으로 걸아갈 NEXT 50년" (시 78:4)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 (213) 381-2202 www.mijopeace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녀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세운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등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년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종교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브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 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절절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에 오후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 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서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우**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 A, CA 90019
T. (323) 610-6989, www.wooriga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차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토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기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리십시오 오묘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월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아래교회예배 오후 2:0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3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714) 871-8320 / www.okcc.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주일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아부 오후 1:00
KM대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교육부세)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lchurch.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요새벽부흥회 토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교회학교
영아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1: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 / inlandchurch.org

美 의원 11명, 파키스탄 정부에
기독교 여성 보호 촉구

이번 서한 발송을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연방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 페이스북 (Chris Smith facebook)

미국 연방의원 11명이 실종된 뒤 이슬람교로 개종한 상태로 발견된 파키스탄의 18세 기독교 여성 네하 파키르(Neha Faqir)의 신변을 보호하고, 외부의 압력 없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파키스탄 정부에 촉구했다.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가 지난 8월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 20일 아잠 나지르 타라르(Azam Nazeer Tarar) 파키스탄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파키르의 실종 이후 진행된 수사와 재판 절차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International·CSI)는 현재 파키르의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파키르는 지난 3월 24일 펀자브주 카수르 지역 코트 라다 키산에 있는 집을 나서 인근 재봉 교육센터로 향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가족을 돕던 변호사가 라호르의 한 이슬람 신학교에서 그의 소재를 확인했으며, 가족은 파키르가 실종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강제로 이슬람교로 개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은 파키르가 이전까지 종교를 바꾸었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다며 이번 개종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족은 딸의 귀가를 요구하며 법원에 청원했지만, 라호르 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파키르는 이슬람 성직자들과 함께 법정에서 출석했으며, 가족은 재판 전이나 재판 과정에서 그와 따로 대화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그가 왜 실종됐는지, 또 자신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들은 “재판 전이나 진행 과정에서 가족이 그와 대화할 수 없었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에는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의원을 비롯해 제임스 맥커번(민주·매사추세츠), 프랜치 힐(공화·아칸소), 거스 빌라리키스(공화·플로리다), 앤디 해리스(공화·매릴랜드),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의원 등 모두 11명이 서명했다. 의원들은 파키스탄 정부에 파키르의 안전과 신변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변호인과 비공개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족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사법 절차에서도 협박이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파키르의 부모는 벽돌공장 등에서 일하는 기독교인 부부로, 네 자녀 가운데 셋째인 파키르가 기술을 익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종 약 두 달 전부터 현지 무슬림 가정에서 운영하는 재봉 교육 센터에 보내기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은 파키르가 실종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신고를 취하하라는 압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제기독교연대 측 변호인은 이후 라호르 고등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경찰에 파키르의 소재를 파악하라고 명령했고, 경찰은 그가 라호르의 정부 보호시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다시 인신보호 청원이 제기되면서 가족은 지난 6월 9일 재판에서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파키르를 볼 수 있었다. 당시 파키르는 이슬람식 복장을 하고 무슬림 여성과 이슬람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매는 파키르와 직접 대화하지 못했고, 법원도 가족과의 대화를 허용하지 않은 채 귀가 청원을 기각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파키르가 실종과 개종,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미국 의원들의 개입에 앞서 영국에서도 파키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국제기독교연대는 지난 6월 16일 영국 상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으며, 데이비드 알턴(David Alton) 의원은 이후 영국 정부의 중동·파키스탄 담당 관계자에게 서한을 보내 개입을 요청했다.

국제기독교연대의 조엘 벨드캠프(Joel Veldkamp) 대외정책 담당자는 “네하와 파키스탄에서 박해받는 모든 기독교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준 의원들에게 감사한다”며 “파키스탄 정부가 폭력과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불처벌 관행을 끝내고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줄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네하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적 소수자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강제개종, 강제결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권변호단체 주빌리 캠페인(Jubilee Campaign)이 지난 7월 유럽의회에 제출한 ‘도난당한 소녀들(Stolen Girls)’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적 소수자 소녀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납치·강제개종·조혼·성폭력 의혹 사례는 21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86건인 88.6%가 펀자브주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의 83% 이상은 18세 미만이었으며, 보고서에 나타난 피해자 평균 연령은 12.8세였다.

유진 김 기자

두산에너지빌리티, 네팔 대홍수 실종
직원 수색 총력...헬기·드론 투입 확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민간 헬기와 드론을 동원해 실종 직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 대응 인력도 20명 안팎으로 늘리며 구조 활동을 강화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전날 오후 3시 30분경 현지 당국으로부터 헬기 운항 허가를 받아 대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31일 처음 헬기를 투입한 데 이어 이를 연속 항공 수색에 나선 것이다. 수색은 대홍수가 덮친 에퍼트리슬

리-1 수력발전소 상부와 사무동 일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날에도 네팔 당국에 헬기 2대의 운항을 신청하고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헬기와 함께 드론도 적극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회사는 현장 대응 인력도 지속 보강하고 있다. 전날 추가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대응팀 규모를 20명 내외로 확대했다.

이나래 기자

달린 책 “교회, 부흥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적인 위십 리더 달린 책(Darlene Zschech)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새로운 예배의 표현이 나타나는 또 한 번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전 힐송 위십 리더인 책은 최근 크로스워크 토크(Crosswalk Talk)의 마이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예배와 부흥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회가 다시 부흥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부흥운동을 돌아보며 역사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노래가 함께 등장했다면서 “새로운 노래는 언제나 이 땅에서 일어난 새로운 부흥과 함께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다.

책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대의 기독교 작곡가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책은 호주에서 현대 예배운동이 형성되던 초기 시절을 회고하며 당시 예배가 복음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를 “부흥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표현하며, 예배를 인도한 뒤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는 대신 곧바로 결신의 시간이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당시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자신의 신앙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배 인도자와 음악가, 작곡가, 음향·제작 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하며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책은 당시 자신과 동료들이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회고했다.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책은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불



달린 책.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리는 예배곡 ‘Shout to the Lord’가 탄생한 과정도 소개했다. 그는 두 어린 자녀를 키우던 시절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광고 음악을 부르기도 했다.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은 책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고, 약 20분 만에 노래를 완성했다. 그는 이 곡을 반복해서 부르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노래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작곡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책은 처음에는 자신이 만든 노래를 교회의 위십 목회자에게 보여주지도 못했다. 결국 노래를 들려주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에 뒤돌아 있어 달라고 부탁했고, 노래의 일부를 계속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래를 들은 위십 목회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주말부터 교회에서 이 곡을 부르겠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 노래는 빠르게 세계 각지로 확산됐다. 책은 이를 자신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노래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세상에 알리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美서 추방된 이란인 기독교 개종자 캐나다서 난민 지위 얻어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던 중 추방된 이란인 기독교 개종자가 캐나다에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미국에서 추방된 이란인 기독교 개종자 아르테미스 가셈자데(Artemis Ghasemzadeh)는 최근 캐나다에서 망명을 인정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란을 탈출한 기독교 개종자인 가셈자데는 2024년 12월 남동생과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샌디에이고에서 구금됐다.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과도 분리됐다.

가셈자데는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란인 기독교인 11명 가운데 한 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해외 재정착 정책에 따라 입국 약 두 달 만에 파나마로 추방됐다.

파나마 정부는 가셈자데를 비롯한 이란인 기독교인들이 202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셈자데는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낮다는 변호사들의 조언에 따라 캐나다 망명을 추진했다.

가셈자데의 미국 추방은 종교 자유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들 단체는 가셈자데가 망명 신청자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신뢰할 만한 공포’ 심사를 받지 못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기회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셈자데는 국제기독교인권 감시기구에 이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징역형이나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셈자데의 사례는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으로도 이어졌다. 야사민 안사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른바 ‘아르테미스법(Artemi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신속 추방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이민·국적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명이 추가로 공

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아직 미 하원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란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특히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국가로 평가돼 미국 국무부의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란 내 기독교인과 양심수에 대한 처우 역시 최근 이란 전쟁 이후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셈자데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캐나다의 한 부부가 그의 사연을 접하게 됐다. 이인과 나ومی 엘리엇 부부는 가셈자데가 캐나다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후원자로 나섰다.

그러나 2025년 민간 난민 후원 프로그램의 정원이 이미 소진돼 가셈자데를 캐나다로 데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부부는 수개월 동안 기도했고, 이후 한 난민 재정착 기관으로부터 자리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다.

엘리엇 부부는 가셈자데의 남동생이 미국에서 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미국인 변호사로부터 필요한 비용 2만5천 달러를 지원받았다.

가셈자데는 캐나다 정부가 망명을 승인한 지 한 달 뒤인 7월 초, 밴쿠버 인근 덴턴 아일랜드에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했다.

가셈자데는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내가 정말 이곳에 와 있고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이제야 고난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셈자데 외에도 미국에 입국한 뒤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이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인 기독교인 자매인 마한 모타하리리 모잔 모타하리는 지난해 말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구금됐다. 현지 공항에서 출국 관련 단속을 벌이던 미국 국경순찰대가 두 사람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2022년 미국에 입국한 뒤 세례를 받은 이들 자매는 올해 초 석방됐다.

이미경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박종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대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 1부 8:10am
주일 2부 9:30am (강 교목부 예배)
주일 3부 11:20am (강 교목부 예배)
한여름 3부 11:30pm / 동여름 2부 2pm / 수요경배회(한월) 7:30pm
새벽예배 평일 월-금 5:30am, (토) 6am
EM(DSCP) 1부 9:30am / 2부 11:00am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 교회를 교회되게 ·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714) 680-9556 www.dongshinchurch.com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 (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주일예배 1부: 8:00 am 새벽예배: 5:30am(화-금)
주일예배 2부: 11:00 am 유아,유치부: 11:00am(주일)
토요 새벽: 6:30am(토) 초,중,고등부: 11:00am(주일)

이종천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사람으로 하나되고 은혜로 세워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213) 999-9298 www.Nachimban.org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이고 내 길에 빛이나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배움) 오전11:0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음채움)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여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주중새벽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노인일예배 오후 7:30 한여름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침묵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 3:33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10:30 목요 TEE 양육 Zoom 오후 7:30
목요 가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전 12:15 (한국어, 교목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상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기에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org/lvk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김광석 담임목사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rkpc.net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주일 오전 1: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1:30

홍경현 담임목사

헨더슨주사랑장로교회

2 S. Pecos Rd, Henderson, NV 89074
T. (702)304-0324 / http://hendersonk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문의 (213)392-2323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배에는 숙변제거와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70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 마음이 편해지는 장례플랜

장례 플랜 (화장, 매장)

Worldwide FAMILY INC.

Representing Family Owned & Operated Funeral Homes

- 1 불가 상송 대비 장례 비용 고정
- 2 사망 시 신속한 장례 절차 진행
- 3 원하는 화장 또는 매장 방식 설정
- 4 부담 없는 장례 요금 할부 계획
- 5 만성 질환, 정부 혜택 수혜자도 가입

이한주 장례전문 상담사 CA Lic. #0K41143 213.321.878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미주복음방송 ‘2026 공개 헌금의 날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이하 GBC)이 ‘2026 GBC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을 10월 2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동안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공개헌금의 날’은 상업광고 없이 전적으로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GBC가 한 해 동안의 방송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공개 모금 캠페인이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45만 달러이며, 모금액은 △송출타워 모기지 상환 △일반재정 부족분 조달 △송출타워 노후장비(제너레이터 등) 교체 △종합미디어로의 도약을 위한 시설·인적 투자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6년 주제는 ‘우리가 함께 쓰는 내일’이며, 슬로건은 ‘복음의 소리, 우리가 지켜야 다음세대가 듣습니다’이다. 이는 로마서 10장 14~15절 말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요...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에 뿌리를 둔다. GBC는 후원자들

의 헌금을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라 다음세대가 신앙을 만날 길을 미리 준비하는 씨앗으로 여긴다.

사전 특집방송 예고 - <복음의 소리, 우리가 지킵니다> 공개헌금의 날에 앞서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매일 오전 9시~9시 35분 특집방송 ‘복음의 소리, 우리가 지킵니다’를 편성한다.

[부르심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방송선교의 여정]이라는 부제 아래,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작은 순종 하나로 뿌리내린 방송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님에게 걸쳐 되짚는 특집이다.

올해 ‘공개헌금의 날’에도 GBC



Anaheim 본사를 비롯해 남가주 전역 12곳에 부스가 설치된다.

2026 공개헌금의 날

일시 : 10월 2일(금) 오전 8시~오후 7시 30분

문의 : (714) 484-1190

김민선 기자

그레이스 김 개인전... ‘색이 머문 자리’

바쁜 이민 생활로 잠시 캔버스를 떠났던 그레이스 김 작가가 첫 개인전으로 관객들을 찾는다.

이번 전시회 ‘색이 머문 자리’에서는 작가가 오랜 몰입 끝에 완성한 유화, 수채화, 파스텔화, 추상화, 펜화 등 총 5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된다.

그레이스 김의 개인전은 9월 5일(토)부터 9월 14일(월)까지 E.K.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오프닝 리셉션은 9월 5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그레이스 김 작가는 홍익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하던 뒤 미국으로 이주했다.

갤러리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문의는 (323)272-3399로 하면 된다.

E.K. 갤러리: ek-gallery.com



남가주 소식

▶ 임동선 목사 기념 창작 뮤지컬 동양선교교회 설립자 고 임동선 목사의 선교정신을 잇는 뮤지컬 드라마 ‘지구촌은 나의 목장’이 오는 19일 오후 6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무대에 오른다.

일시: 9월 19일(토) 오후 6시

장소: 남가주 새누리교회

▶ 주영훈 집사 초청 간증집회 주영훈 집사 초청 간증집회가 열린다.

엘바인온누리교회 9/13 주일 오전 9:15, 11:30

감사한인교회 9/18 금 오후 7:30

동양선교교회 9/20 주일 1:30

▶ Youth KOSTA Irvine 한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2026 Youth KOSTA Irvine이 오는 9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엘바인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일시: 9월 18일(금)-20일(주일)

장소: Irvine Onnuri Church

▶ F.I.A 워십 집회 피아워십이 미 서부에서 집회를 연다. 9월 4일 엘바인 온누리교회와 6일 씨드교회, 라스베가스 비전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에브리데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를 거쳐 샌디에이고 갈보리장로교회 집회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9/4(금) 오후 7시 30분 엘바인온누리교회

9/6(주일) 오전 9시, 11시 15분 씨드교회

9/6(주일) 오후 7시 30분 라스베가스비전

9/9(수) 오후 7시 30분 에브리데이교회

9/11(금) 오후 7시 30분 주님의영광교회

9/12(토) 오후 6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9/13(주일) 오후 6시 샌디에이고 갈보리장로교회

▶ 나성영락교회 ‘미션 엑스포’ 나성영락교회(박은성 목사)가 9월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미션 엑스포’를 개최한다.

김바나바 목사(윈즈한인교회 담임)가 9일, 김한요 목사(메텔교회)가 10일,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가 11일 강사로 선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www.kurbanbuilders.com

www.en.kurbanlike.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Urban Builders

CSLB # 854389

견적 상담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Show Room



교회 · 학교 · 커머셜 빌딩 · 비영리단체를 위한
특별한 기회!

이제,
태양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영리단체 및 교회도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DIRECT PAY PROGRAM 핵심 혜택



최대 40% 현금 환급

설치 비용의
최대 40%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



세금이 없어도 OK!

비영리단체도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수령



전기요금 절감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운영 예산
부담 감소



친환경 & ESG 실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상담받고 최대 40% 절감혜택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 솔라 공사를
실제 6만 불에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40% 다이어트, 효과는 100% 그대로!

계약체결·설치중인 교회



YNCL 낙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http://www.dhkc.org>



코너스톤교회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530-4040
<http://www.cornerstonetv.com>



**B T S
SOLAR
DESIGN**

비영리단체를 위한 맞춤형
태양광 솔루션

213-500-8000



btssolardesign@gmail.com



www.btssolardesign.com

☑ 전문 엔지니어 상담

☑ 맞춤형 설계 & 시공

☑ 정부 인센티브 최대 활용

☑ 믿을 수 있는 사후 관리

새라 김 칼럼

보건부 폭로에도 꿈쩍 않는 CA, 미성년자 성전환 보험 강화 추진



새라 김 대표
TVNEXT.org

오늘, 제빈 뉴섬에게 악법들 반대 전화하기! 캘리포니아 - 어린이 성전환에 선구적 역할, 사건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병원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소아 젠더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지난주에 알려졌다듯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캘리포니아의 미성년자들은 총 1,359건의 해당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2위인 오리건주의 약 4배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도 4건 중 1건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공립학교와 학교 상담자, 의료계의 잘못된들 폭로하며 자신과 같은 십대들을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로부터 구출해달라고 하소연해오던 클로이 콜(Chloe Cole)이 대표적인 학생 중 한 명입니다. 클로이 콜은 10대 시절 받았던 성전환 의료 치료와 관련해 카이저 퍼머넌트를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또 다른 피해자 클레멘타인 브린(Clementine Breen)은 2024년 12월 요한나 올슨-케네디 박사(Dr. Johanna Olson-Kennedy)와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한나 올슨-케네디 박사는 매우 유력한 성정체성 확인(Gender-Affirmation) 치료 전문가이자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병원의 의료 책임자로서, 바이든 행정부 때에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지원을 받아 970만 달러(\$9.7 million) 규모의 9년짜리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조기 의학적 치료의 영향’이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책임 연구자입니다. 이 연구는 미성년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위험한 사춘기 차단제(Puberty Blocker)를 복용한 어린이 95명을 추적 조사하는 임상실험이었는데, 사춘기 차단제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녀의 임상실험에는 드러나야 할 치명적인 리포트가 숨겨지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진행된 백악관 보건의료 및 금융 서비스(Health Care and Financial Services)의 리사 맥클레인 위원장 팀 조사 발표에 의하면, 1) 정치적으로 사용되면 안 될 970만 달러 규모의 납세자 자금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춘기 지연제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가 책임 연구자인 요한나 올슨-케네디 박사에 의해 2) ‘성별 확인’ 모델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 발

표가 보류되고 3) 시술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방 자금 지원 연구 결과들은 은폐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25년 4월 26일 로스앤젤레스 LGBT 센터로부터 랜드 슈레이더 상까지 수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보건부(HHS)는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라’는 연방법을 위반한 가능성이 큰 캘리포니아주의 다음과 같은 의료 기관들을 법무부에 회부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병원, 샌디에이고의 레이디 어린이 병원, 스탠포드 대학교 루실 팩커드 어린이 병원, UCSF, UCI, 카이저 남부 캘리포니아 의사 그룹 등 매우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자, 캘리포니아의 병원들이 1년 넘게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관련 약물 및 수술을 제공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는 긍정적 리포트입니다. 스탠포드 대학병원은 2025년 6월에 수술을 중단했고,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병원은 한 달 뒤인 7월에 클리닉을 폐쇄했고, 카이저도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서터헬스(Sutter Health)는 지난 12월 해당 시술을 중단했고, 레이디 어린이 병원(Rady Children’s)도 2026년 2월에 뒤를 이어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아무리 현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 미성년자들의 성정체성을 보호하고자 정책적으로 열심히 밀어주고 있어도,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의 Dawn Addis 하원의원이 제출한 AB 1876이 통과된다면, 캘리포니아주는 또다시 악의 세력들이 돈과 권력을 위해 서로 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B1876의 목적은 ‘저렴한 의료보험법(ACA)’ 제1557조에 명시된 연방 차원의 보험 차별 금지 보호 조항을 캘리포니아 주법에 직접 반영하여, 미성년자들이 성전환할 때 사용할 보험 비용을 낮추어서 더 쉽게 성전환 시술을 하도록 격려하며, 동시에 현 트럼프 연방 차원의 규제로부터 CA 주정부 미성년 성전환 악법들을 보호하려는 발의안입니다. AB1876이 통과되면 ‘보험사가 개인의 출생 시 지정된 생물학적 성별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 계약을 해지,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에 대한 보험 보장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미 제빈 뉴섬 책상에 올려져 있는 3가지 악법들 반대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Gavin Newsom Office: (916) 445-2841
AB1876. AB1930: 낙태 포함 및 AB1876과 같은 종류의 발의안 AB2107 - 이슬람의 2가지 휴일 허용으로 인한 이슬람 영향력
할 말: My name is _____. I live in _____ county. Please oppose AB1876, AB1930 and AB2107.)

정재우 칼럼

경제와 군사 강국을 넘어, 문화강국으로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이 태어난 지 150년이 되는 날이다. 1876년 8월 29일 태어난 백범은 1949년 6월 26일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품었던 꿈은 150년이 지난 오늘 오히려 우리 앞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있다. 유네스코는 2025년 제43차 총회에서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로 공식 지정했다.

한국 인물로는 정약용, 김대건 신부에 이어 세 번째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것은 독립운동가 김구의 삶만이 아니라 그가 꿈꾼 평화와 문화의 가치였다.

마침 오늘 국민일보에는 우성규 종교부장의 「백범의 사무사」가 실렸다. ‘사무사(思無邪)’는 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뜻이다. 백범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이 깊이 다가온다. 그의 생애는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미래를 향한 일관된 삶이었다.

항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동학에 입교했고, 치하포 사건으로 투옥과 사형선고를 겪었다. 탈옥 후 마곡사에서 출가하기도 했으며,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여 교육과 계몽운동에 힘썼다.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을 시작으로 내무총장·국무령을 거쳐 주석에 올랐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이봉창·윤봉길의 거를 이끌었고, 한국광복군 창설에도 힘을 보탰다. 해방 후에는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다 암살당했다.

백범은 독립을 단순히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주독립과 민족통일,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문화국가 건설을 함께 꿈꾸었다. 권력을 얻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었다. 독립된 나라가 세워진다면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고 했다. 해방 이후에도 분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

그의 신앙 역시 삶의 장식이 아니었다. 유교와 동학, 불교를 거쳐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 「나의 소원」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라고 고백했다. 신앙은 조국 사랑과 이웃 사랑, 희생과 책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백범을 오늘 다시 읽게 하는 가장 놀라운 대목은 정치보다 문화다. 그는 강한 나라를 원했지만 단순히 부강한 나라를 원하지 않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다.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정도면 족하고, 경제적 부강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다.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문화의 나라를 꿈꾸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라. K팝과 영화, 드라마, 웹툰, 음식과 한글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백범이 1947년 「나의

소원」에서 꿈꾸었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는 나라’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범 탄생 150주년인 오늘, 그의 질문은 정치인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남기기 위해 정치를 하는가.”

진영의 승리보다 국민을, 권력보다 미래 세대를 먼저 생각하라는 물음이다.

만약 백범이 해방 직후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미·소 대립과 좌우 갈등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그의 뜻만으로 분단을 막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오늘날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과 군사 강국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세계를 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강한 나라는 힘으로 남을 누르지만, 아름다운 나라는 문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백범이 남긴 가장 오래된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다.

TV 기독교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교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교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미주기독교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교일보**'를 검색하세요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 되길 꿈꾸라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 계획대로 인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가난한가요?

데이브 신 | 토브박스 | 322쪽

부는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본서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주일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라는 질문과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라는 소망에 답을 주는 동시에 실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과 투자를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는다

저자의 따뜻한 관심과 날카로운 제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가난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가난한가요?』의 저자인 데이브 신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저자는 서울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삼성경제연구소와 미국 IBM에서 임원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제학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다. 동탄 동산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성경적 재정 훈련을 인도하고, 리더북스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다수의 저서로 기독교 안팎 독자에게 경제적인 지식과 지혜를 나누고 있다.

이번에 토브박스에서 출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가난한가요?』는 ‘부는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다’라는 주제를 기독교인들에게 심어주는, 특별한 목적을 지향하는 책이다.

저자 데이브 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무엇을 기대할까? 아마 ‘어떻게 하면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기를 바랄 것이다. 주식 정보 또는 투자 방법에 관한 조언 등을 바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 여기저기에서 그런 유용한 정보와 원칙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독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권면으로 채워져 있다. 부자가 되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진지하게 묻는다.

한때 기독교 내에서 ‘거룩한 부자’ 되는 법을 배우려는 열풍이 불었다. 굉장히 안타깝고 크게 우려됐던 것은, 그 열정과 갈망을 불태우는 연료가 ‘거룩한 자’가 되려는 데 있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부자가 되려고만 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룩한 삶도 결국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더 많은 부를 얻어

내기 위한 쇼였다.

성경적으로 재정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책들이 제법 있다. 랜디 알콘이 쓴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토기장이, 2011)』, 같은 저자가 쓴 『돈, 소유, 영원(토기장이, 2014)』. 벤 워더링턴 3세가 쓴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넥서스CROSS, 2016)』, 폴 트립이 쓴 『돈과 영성(두란노, 2019)』.

알콘은 성경의 모든 구절을 동원해 재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을 명확하게 설명했고, 워더링턴은 특별히 성경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 현대 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재정 원칙들을 제시했다. 폴 트립은 그의 특징점을 잘 살려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을 사용할 때 복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라고 권면했다.

데이브 신이 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가난한가요?』는 기존의 책들과 다른 방법으로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가르친다: ①크리스천의 성경적 재정관 ②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인가? ③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어렵다 ④주의 자녀인데 왜 가난한가? ⑤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다섯 개의 큰 묶음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다섯 개의 묶음으로 내용이 크게 구분되는 것 같지는 않다. 저자는 계속해서 독자에게 같은 권면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몇 가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보자면, ①그리스도인도 재물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목적으로 그것을 구해야 한다 ②부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부를 얻으려 하는가에 있다 ③부하게 되는 것이 항상 복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독이다 ④돈을 벌기 위한 노력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투기나 요행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성실한 투자가 필요하다 ⑤부는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픽사베이

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영향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해야 한다 ⑥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등이다.

저자는 이렇게 책을 마무리했다. “세상의 창을 통해 바라보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돈이 우리의 필요를 단번에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하는 돈이 하나님 원리대로 사용될 때, 그 자리는 축복의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 안에서 성공이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320쪽).”

흔히 기독교적 가치는 검소함과 청빈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가난하고 궁핍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하나님의 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는 것,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부자가 바로 검소하고 청빈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브 신이 쓴 이 책이 모든 독자를 부자가 되고 싶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눅 12:20),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부자.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119 : 49



Remember your word to your servant, for you have given me hope.
PSALM 119:49

용수산 龍水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싱apore 특선 설렁탕

GOOD MORNING SPECIAL EVERYDAY 7AM ~ 10AM

표고우거지해장국 \$10.96 +tax

뚝뚝 설렁탕 \$10.96 +tax

북어국 \$10.96 +tax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버리순두부 자리
Uber Eats 밀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아름다움과 감상주의: 제러미 S. 벡비의 역감상주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악과 고통마저 미화하는 것인가?

부서진 아름다움:
크리스천 예술의 적정률
참된 아름다움, 치열한 용기 요구
유해한 감상주의로부터 분리해야
십자가와 부활 기초한 역감상주의

오늘날 예술 비평의 장(場)에서 ‘아름다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자칫 비평적 태만의 징후로 오인되거나 냉소의 대상이 되기 쉽다. 전문가들이 이 가치를 폄하하는 이면에는 토마스 킨케이드(Thomas Kinkade) 식 미학이 상징하는 감상주의적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다.

T. 킨케이드의 작품은 고통, 상실, 상처가 거세된 ‘장밋빛 과거’만을 이상화하며, 이는 고통스러운 인간 현실에 직접 참여하신 기독교의 성육신적 신비와는 본질적으로 괴리돼 있다. 전문가들은 아름다움에의 경도가 세상을 정직하게 응시하기보다 ‘감상주의(Sentimentality)’라는 뒤편에 빠져 실재를 왜곡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자르(Hans Urs von Balthasar)가 통찰했듯이, 참된 아름다움은 진리와 선함만큼이나 치열한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는 가치이다.

신학자이자 미학자인 제러미 S. 벡비(Jeremy S. Begbie)는 이런 감상주의가 피상적이거나 사소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문화 내에 깊이 뿌리박힌 ‘감정의 여러 종류의 질병에 붙여진 이름’, 즉 심각한 ‘정서적 병리학(pathology)’이라고 진단한다(Jeremy S. Begbie, ‘Beauty, Sentimentality and the Arts’, in The Beauty of God, Theology and Arts, IVP, 2006. 46쪽, 이하 페이지만 표시).

기독교 미학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을 유해한 감상주의로부터 분리해 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벡비는 감상주의의 한계를 세 가지 차원에서 규명하고 그 대안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역감상주의(Countersentimentality)’를 제시한다.

감상주의의 병리적 한계

- 1. 실재의 왜곡과 악의 희화화
- 2. 정서적 자기 탐닉, 타자 도구화
- 3. 실재 왜곡과 희생적 행동 부재

첫째, 실재의 왜곡과 악의 희화화이다. 감상주의자는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악의 실재를 직면한 능력이 없기에, 세상을 ‘순수함의 허구(the fiction of innocence)’라는 장밋빛 안경으로 거칠 채색한다.

이는 예술 작품 속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 『오래된 골동품점(The Old Curiosity Shop)』에서 묘사된 리틀 넬(Little Nell)의 죽음은 실제 죽음이 동반하는 처절한 고통과



▲신학자이자 미학자인 제러미 S. 벡비(Jeremy S. Begbie) 교수. ©듀크대

상실감을 배제한 채, 죽음을 ‘가장한 친구’나 단지 ‘옆방으로 들어가는 문’ 정도로 미화한다. 할아버지와 일행이 넬을 찾아냈을 때, 소녀는 이미 평온하게 숨을 거둔 상태였다. 디킨스는 그녀의 죽음을 고통스러운 종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한다. “그녀는 죽었다. 너무도 아름답고 고요한, 고통으로부터 너무도 자유로운 그리고 깨끗한 휴식이었다(Charles Dickens, The old Curiosity Shop, 김미란 역, 『오래된 골동품 상점』, B612북스, 2015. 724쪽).”

이 장면은 발간 당시 수많은 독자를 울린 것으로 유명하며, 문학에서는 고통의 실재를 미화했다는 ‘감상주의’ 비판과 순수한 영혼의 승화라는 찬사가 공존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은 작품의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여기서 벡비는 죽음이 동반하는 비극, 신체적 고통이나 추함, 이를 지켜보는 이들이 겪는 처절한 괴로움을 생략하고 ‘순수함의 허구’를 강요했다고 지적한다.

악이 가져오는 복잡성과 모호성을 단순화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축소하거나, 고통을 더 큰 선을 위한 필연적 어둠으로 치부하는 ‘성급한 조화(premature harmony)’를 지향함으로써, 진실을 회피한다는 것이 벡비의 주장이다.

둘째, 정서적 차원의 자기 탐닉과 타자의 도구화이다. 밀란 쿤데라(Milan Kundera)가 키치(kitsch)를 정의하며 제시한 ‘두 번째 눈물’의 비유와 같이, 감상주의자는 고통받는 타자에게 깊이 공감하기보다 타인의 고통을 보며 연민을 느끼는 ‘자신의 아름다운 감정’ 그 자체를 소비하는 데 몰두한다.

“키치는 두 줄기의 눈물이 연달아 흐르게 한다. 첫 번째 눈물은 말한다. 잔디 위를 달리는 아이들을 보니 얼마나 좋은가! 두 번째 눈물은 말한다. 잔디 위를 달리는 아이들을 보며 전 인류와 함께 감동을 받으니 얼마나 좋은가! 키치를 키치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눈물이다(50쪽, 재인용).”

감상주의자가 눈물을 흘리는 근본적 동기는 타인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정서적 만족이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받으려는 욕구에 기인한다. 감정이 타인과 연결

되는 진실한 통로가 아니라 자아를 충족시키는 ‘소비재’로 작용하기에 이를 정서적 탐닉이라 부르는 편이 옳다.

이렇듯 키치와 감상주의는 이러한 ‘자기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직면해야 할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고 장밋빛 환상을 구축한다. 감상주의자는 편집된 이미지를 매개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실재를 외면하며, 스스로 구축한 허구적 세계 안에서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가짜 도덕적 위안에 안주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동성 속에서 타자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감상주의자의 주관성 내부로 흡수된다. 감정은 실재와의 진실한 대면이 아닌 자아도취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며, 감상주의자는 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연민이라는 감정 작용 자체를 향유하기 위해 눈물을 흘릴 뿐이다. 피상성과 과도한 감미로움, 그리고 감상적 감정의 조작이 키치를 더욱 조장한다고 관찰한다.

셋째, 실재에 대한 왜곡과 타인을 향한 적절하고 희생적인 행동의 부재이다. 감상주의자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감정적 생활의 유희만을 누리는 ‘혈값에 사는 감정’의 소유자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그 어떤 도전도 거부한다.

가까운 이들보다 낯선 이들에게 훨씬 더 자주 감동받는데, 이는 낯선 이들이 개인적 희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윤리적 일반론에는 편안함(사랑, 평화, 정의 등)을 느끼지만 희생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는 무력하며, 미학을 고통스러운 현실의 도덕적 책임을 차단하는 일종의 마취제(anaesthetic)로 변모시킨다(52-54쪽).

벡비는 감정이 지성, 판단,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부터 분리되는 ‘포스트-이모셔널(postemotional)’로 귀결될 때, 인간은 모든 범위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면서도 적절한 행동에 대한 헌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의 진정성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활 3일 내러티브와 역감상주의
렘브란트 ‘세 개의 십자가’ 처럼
악과 타협해 균형 맞추시지 않고
무한한 과잉과 넘치는 사랑으로
고통 위로하려 고통 당연시 안 돼

벡비는 이처럼 실재를 왜곡하고 윤리적 마비를 초래하는 감상주의로부터 아름다움을 구출하기 위한 신학적·미학적 대안으로 ‘부활 3일(Triduum, 성금요일·성토요일·부활주일)’의 내러티브’에 주목한다.

감상주의와 아름다움의 분리는 선험적 미학 이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라는 철저한 신학적 렌즈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벡비는 앨런 루이스(Alan Lewis)의 ‘입체 음향적(stereophonic) 읽기’를 차용해, 우리는 결말(부활)을 아는 상태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시에 결말을 모른 채 금요일의 파쇄된 희망과 토요일의 질은 어둠을 통과하는 내부의 관점을 모두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정한 ‘기독교적 역감상주의(Countersentimentality)’는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참혹한 기억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정직한 인식 위에 서 있다.

이를 명징하게 나타내는 것이 렘브란트의 관화 ‘세 개의 십자가’이다. 이 작품에서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순간을 주제로 삼고 있다.

“신적인 빛줄기는 골고다의 공포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가혹하게 드러낸다. 부활은 분명 금요일의 ‘짙어짐(renting)’ 위에 빛을 던지지만, 그것은 위로의 광휘라기보다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단절, 인간 피조물이 가라앉은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달하고자 하는 깊이를 폭로하는 백색광(white light)에 가깝다(62쪽).”

서성록 명예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렘브란트, 세 개의 십자가, 드라이포인트, 양피지에 인쇄, 38.1x43.8cm, 1653,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차기 담임목사 청빙 공고

(1년간 Co-Pastor/동사목사로 사역 후 담임목사로 취임)



선한목자교회는 LA 동부지역인 Chino Hills, California에 위치한 51년 역사의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복음연합장로교) 소속 교회입니다.



선한목자교회는 “예수의 제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품고 성장해 온 보수적 복음주의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님의 은퇴를 맞아,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 맡기신 사명과 핵심가치를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차기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청빙되신 목회자는 1년간 동사목사(Co-Pastor)로 현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의 목회 방향과 사역을 공유하고 동역하게 됩니다. 이후 교회의 목회와 사역을 이어받아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선한목자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1. 자격 요건

- 이단교회 목회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복음주의적 신학적 정체성을 가진 장로교 목사
- 미국 내 정규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이수하신 분
- 미주 지역에서 5년 이상의 Full-time 목회 경험에 있는 분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경력)
- 본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에 동의하고 함께 이루어가실 분
- 목회적 역량과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갖춘 분
- 미국 체류 및 사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ECO(복음연합장로교) 소속 목사 또는 ECO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한국어와 영어로 이중언어 목회 및 사역이 가능한 분



3. 제출 방법

- 제출 마감: 2026년 12월 31일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제출: resume@sunhanchurch.com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이메일)



2. 제출 서류

- 이력서(최근 본인 및 가족 사진 첨부)
- 목회자 자기소개서 및 목회철학
- 최근 설교 영상 2편 (YouTube 또는 Vimeo 링크)
- 신학대학원 학위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 사본
- 목회자 추천서 2부 (추천인이 직접 청빙위원회 이메일로 제출)



4.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사 후 면접 및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정의태 장로



www.sunhanchurch.com





선교 뮤지컬 드라마

‘지구촌은 나의 목장’



총괄예술감독 윤임상 · 제작/감독 클라라 신 · 연출 최원현 · 작곡/편곡 백낙금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선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임동선 목사님의 선교 정신을 기억하며,
그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선교 음악회 ‘지구촌은 나의 목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드라마 형식으로,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펼쳐진 선교의 여정을 감동 있게 담아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걸음으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음악회 프로그램

• 1부	선교 축하 음악 지휘 Young Jae Kim Kyounghee Kim Kyoung won Lee Jeongwhi Vakh
• 2부	장학금 전달
• 3부	선교 뮤지컬 드라마 ‘지구촌은 나의 목장’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한 사람의 이야기

2026. 9. 19(토) 6:00PM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입장료 무료

문의: 213.388.1000 | <https://kr.wmu.edu>